

# 상업용 윤전기 1402대 가동 인쇄물 수출입 사상 최대치 기록

2007년 일본경제는 경기호전이 진전 되면서 완전 실업률이 3.9%를 기록, 5년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 가는 등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지역 간 소득 격차의 확대, 국제 원유가의 상승 등의 압박이 후반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2008년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인쇄업계는 큰 폭의 경기후퇴는 없을 것이지만, 전반적인 수주가격은 예전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프리프레스가공도가 감소하면서 인쇄업의 매출 구조 변화로 수익발생은 더욱 어렵고 인쇄가격의 하락이 계속 되어 인쇄자재비의 상승도 부담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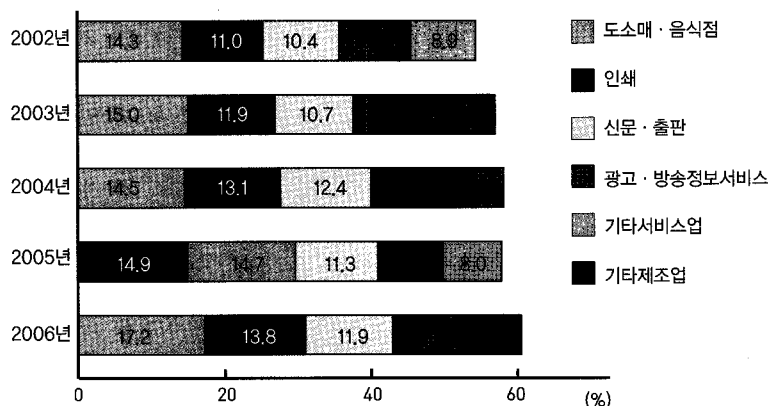
일본 인쇄업계에서는 IT기술, 디지털인쇄기를 활용해 제작을 효율화하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의 단순한 인쇄를 뛰어넘는 크로스미디어 퍼블리싱(매체융합 인쇄)이 화두가 되고 있다.

도매, 소매, 음식점, 인쇄업종 상위권 포진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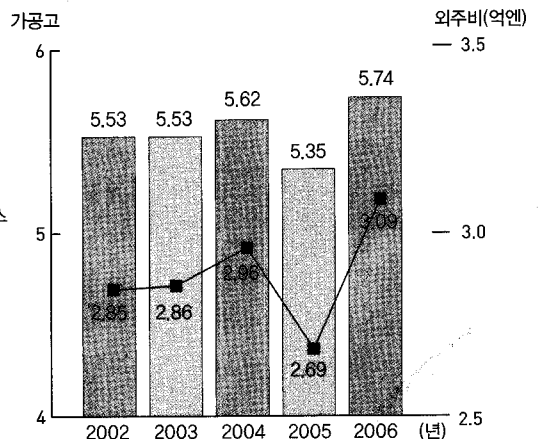
일본인쇄공업조합연합회가 발행한 '2007년도 인쇄업 경영동향 실태조사 집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동향 실태조사 집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주요거래처로 전국 단위로는 도매, 소매, 음식점이 17.2%(전년비 2.5% 증가)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인쇄업으로 13.8%(전년비 1.1% 감소), 3위는 신문, 출판업이 11.9%(0.6% 증가)였다.

뒤를 이어 광고·방송정보 서비스 9.3%(1.7% 증가), 기타 제조업(인쇄업 제외)8.3%(0.6% 감소), 기타 서비스업 7.7%(0.3% 감소), 관공서 5.7%(0.9% 감소)의 순이었다. 도매, 소매, 음식점이 2년 만에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으며, 변함없이 인쇄업자간의 거래가 많았다. 광고·방송 정보서비스가 2단계 상승한 것도 흥미를 끌었다. 도쿄는 신문·출판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

<표1> 인쇄업의 주요 거래처 5업종의 매출 구성비 추이



<표2> 1사당 외주가공비와 가공고 추이



켰으며 대도시권과 지방은 각기 민간 대기업의 집중도에 따라 상위 업종이 뒤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관공서의 비중이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사당 3억 943만 엔을 외주로 <표2>

전국인쇄공업연합회의 '2007년 인쇄업 경영동향실태 조사 집계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회답기업 1사당 순매상고는 2006년 12억 1659만 엔, 외주가공비 3억 943만 엔으로 외주가공비는 순매상고에서 25.4%를 차지했다. 이것은 2005년에 비하면 1.4%상승한 것으로 2년 만에 증가 했다.

외주가공비의 내역은 인쇄비 34.9%(1억 839만엔), 제책·가공비 21.9%(6796만엔), 기타 17.2%(5361만엔), 디자인, 일러스트, 편집 등 12.6%(3923만엔), 사진제판대 6.2%(1936만엔)등의 순이었다. 인쇄대, 디자인, 일러스트, 편집 등은 증가한 반면, 제책·가공비는 감소했다. 이는 DTP/CTP화가 진전되면서 정보네트워크에 의한 데이터의 취합이 쉬워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이며, 제책 가공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서서히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별로 순매상고에서 차지하는 외주비의 비율을 보면, 출판인쇄가 35.5%로 가장 높았다. 내역별로는 인쇄비 33.3%, 제책·가공비 22.5%, 조판비 16.9%순이었다. 이어 25.9%를 차지한 상업인쇄는 내역에서 인쇄비 37.6%, 제책·가공비

19.3%, 디자인·일러스트·편집 등 16.3%, 25.3%의 점유율을 보인 종합인쇄의 내역은 인쇄비 31.3%, 기타 27.1%, 제책·가공비 20.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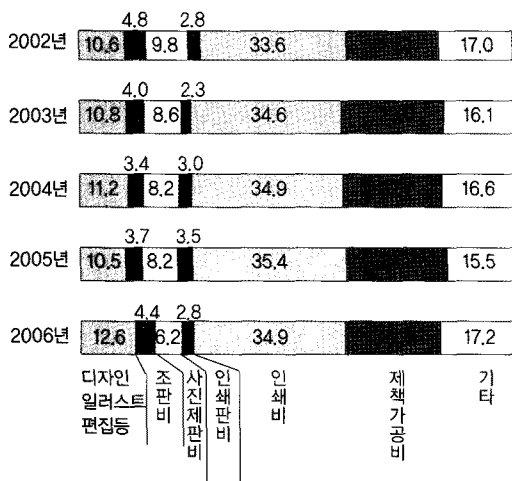
외주가공비 상승에 따라 가공고 감소 <표3>

가공고(순매상고에서 외주가공비, 재료비, 상품 구입 비용을 제외한 것)는 1사당 5억 7414만엔으로 순매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2%(전년 47.6%)로 낮아졌다. 재료비는 22.9%(전년 23.2%), 상품구입비 4.5%(전년 5.3%)등도 전년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외주가공비가 25.4%(전년 24.0%)로 상승하면서 재료비, 상품구입비의 감소치를 뛰어넘는 가공고의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6년 이후, 용지 가격이 계속해 상승하면서 재료비, 상품구입비의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외주가공비가 증가해 가공고가 감소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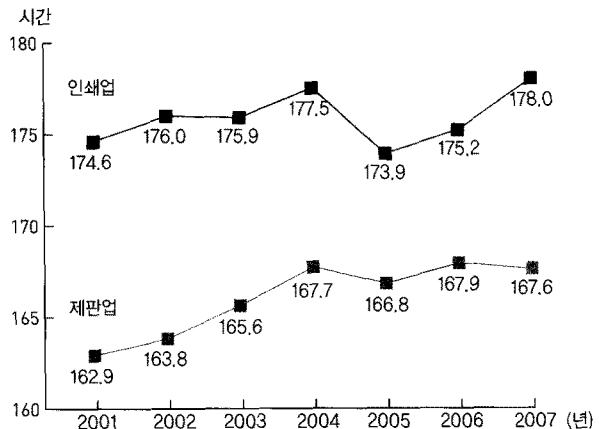
인쇄업체 근로자 연간 2135시간 일해 <표4>

후생노동성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하면 2007년 인쇄업의 월평균노동시간은 178시간으로, 연간으로는 2136시간이었다.(사업규모 30인 이상) 이는 전년의 월평균 175.2시간, 연간 약 2102.4시간에 비하면 월간 2.4시간, 연간 33.6시간이 증가했다. 사업규모 30인 이상인 제조업체들이 월평균 167.6시간, 연간 2011.2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에 비하면 인쇄업계의 증가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많다는 것

<표3> 외주가공비의 공정별 구성비



<표4> 월평균 총노동시간의 추이(30인 이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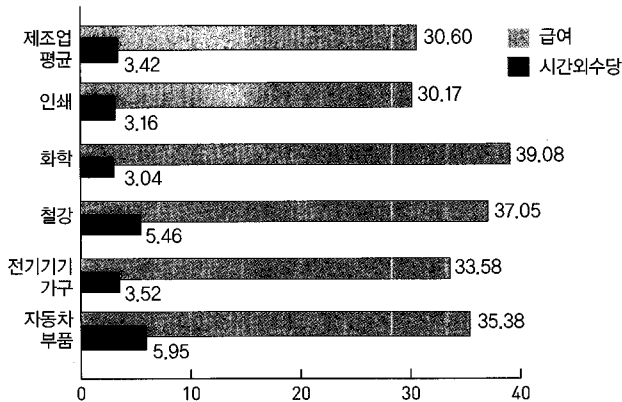


을 보여주고 있다. 인쇄업의 연간 노동일수(사업규모 30인 이상)는 237.6일로, 제조업(사업규모 30인 이상) 평균인 235.2일에 비해 2.4일이 많았다. 다른 제조업체와 달리 인쇄업은 생산물 하나하나가 각기 납기가 다른 특수성이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맞추기 어려워 휴가를 갖기가 어렵다는 것도 이유의 하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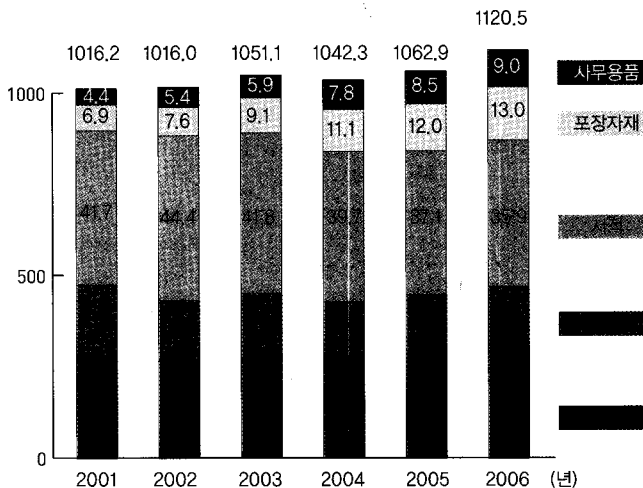
소정급여는 다소 줄어 <표5>

2008년판 활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06년 종업원 5인 이상 규모의 인쇄업의 평균 월간 소정내 급여(정기급여에서 잔업수당을 제외한 금액)는 27만 100엔으로 전년에 비해 900엔이 감소했다. 또 잔업수당을 포함한 정기급여도 30만 1700엔으로 전년 보다 700엔이 줄었다. 한편 제조업 평균 정기급여는 2005년의 30만

<표5> 월평균 급여



<표6-1> 품목별 수입 구성비



4000엔에서 30만 6000엔으로 2000엔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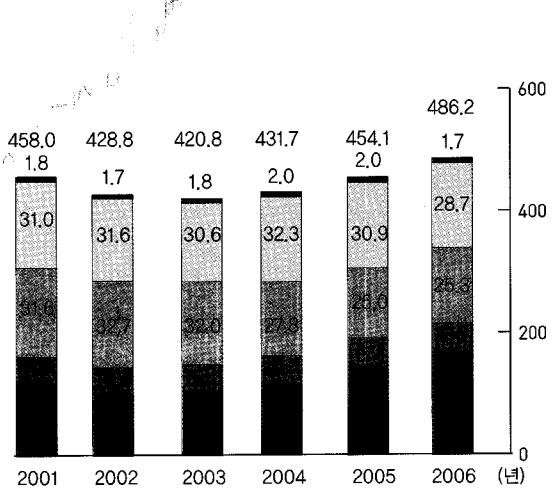
인쇄물 수입 2년연속 증가 <표6-1>

재무성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2006년의 인쇄물 수입액은 전년비 5.4% 증가한 1120억 4700만 엔으로 파악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쇄물의 수입은 증가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크게 늘었다. 가격 안정을 위해서 포장자재, 사무용품의 수요가 급증했고, 또 인쇄기술의 향상으로 상업인쇄물도 증가했으나 그 양은 일본 국내 수요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저비용의 인쇄 수요의 해외유출이 문제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쇄산업의 고객기업의 공장이 해외로 진출하면 그에 따른 포장인쇄물(패키지, 라벨 및 취급설명서, 매뉴얼)의 제작을 해외에서 진행하게 되고 이것은 완성품의 인쇄물수입으로 이어져 인쇄산업전체로 보면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한편 수출액은 전년비 7.1% 늘어난 486억 2000만엔을 기록했다.

포장자재, 사무용품 수입증가 주도 <표6-2>

인쇄품목별로 수입액의 추이를 보면, 캘린더, 광고인쇄물 등의 상업인쇄물은 27.7%로 시장점유율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금액은 309억 8400만 엔으로 전년에 비해 4.4% 증가했다.

<표6-2> 품목별 수출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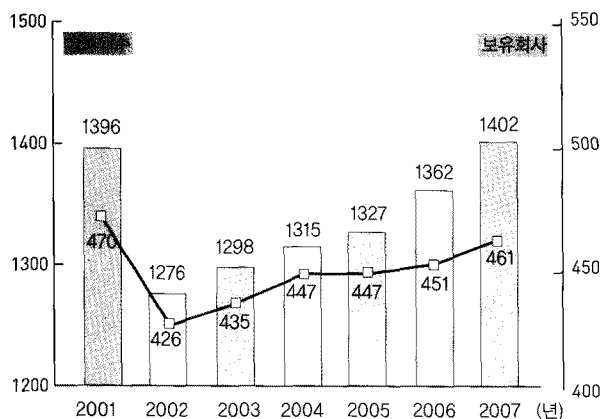
최고 점유율은 서적으로 35.9%, 401억 7800만 엔으로 전년에 비해 1.8%증가했다.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은 14.5%, 162억5900만엔(전년비 5.9% 증가), 포장자재 13.0% 145억 1900만엔(전년비 13.4% 증가), 사무용품(장표, 메모장, 일기장 등)이 9.0%, 101억 900만엔(전년비 1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장자재, 사무용품의 두드러진 증가세는 중국이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한데 따른 것이며 또한 중국은 전품목에서 신장세를 보였다. 중국은 국별 수입통계에서도 아시아각국을 크게 앞질렀다. 수출은 서적이 25.3%(전년비 0.3% 증가), 포장자재 27.8%(전년비 2.2% 감소), 정기간행물 9.4%(전년비 0.7% 감소), 상업인쇄물 34.9%(전년비 2.8% 증가)의 점유율을 보였다.

#### 오프셋윤전기 설치업체 증가 <표7>

일본인쇄신문사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일본 전국의 중소인쇄회사에서 가동되고 있는 상업·출판용 오프셋윤전기는 461개 설치사업소, 설치대수 1402대로 확인됐다.(신문용 윤전기는 89개 사업소, 327대)

그러나 신고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도 있어 증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곤란하지만 직전 조사에 비해 10개 사업소, 40대라는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최근 미디어의 다양화, 다품종소량생산화, 출판 불황 등에 따라 대량부수의 일감이 줄어들고, 윤전인쇄나 매엽기도 합리적 구성의 필요성에 압박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 측에서도 이런 경향을

<표7> 전국의 오프셋윤전기설치 대수 및 보유회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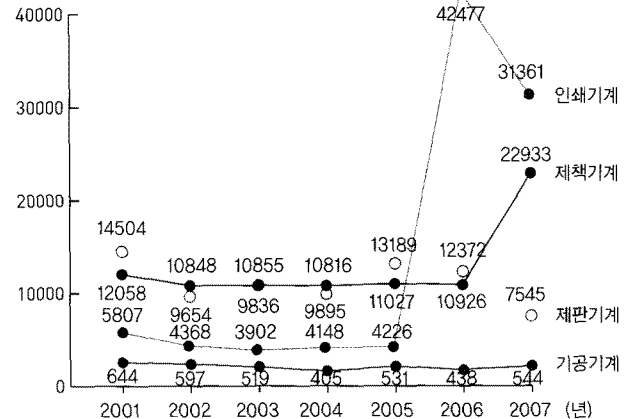
반영한 기능을 장비한 기계를 개발하고 있다.

판 크기별로는 B2판이 881대로 62.8%로 최고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서 A1이 256대, B3가 133대의 순이었다. A1크기는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다색기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의 80% 이상을 4×4, 5×5기가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전국의 행정구역별로 보면 사이다마현이 74개 사업소 317대, 오오사카부가 43개 사업소, 157대, 아이치현이 33개 사업소, 102대의 순이었다.

#### 인쇄기계 생산대수는 감소 <표8>

경제산업성의 2006년 기계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인쇄기계의 생산대수는 3만 1361대로 전년 실적인 4만 2477대에서 크게 감소했다. 2005년은 새로운 산업용디지털인쇄기(A3 크기 이상)가 통계에 추가되면서 대폭 증가했지만 2006년에는 디지털인쇄기가 다시 누락된데 따른 것이다. 평판인쇄기의 생산대수는 전년비 11.2% 늘어난 2121대였다. 평판인쇄기의 내역을 보면 오프셋윤전기가 전년보다 16.4% 증가한 192대, 매엽인쇄기가 10.7% 증가한 1929대였다. 요판인쇄기는 52.9%증가한 26대, 기타 인쇄기(실, 폼, 스크린인쇄기 등)는 전년대비 4.6%증가한 2240대였다. 디지털 인쇄기는 2만 6974대였다. 제판기계는 전년비 39% 감소한 7545대, 제책기는 전년비 109.9% 증가한 2만 2933대, 제합기, 골판지 제조 등 지공기계는 전년비 24.2% 증가한 544대였다.

<표8> 인쇄관련기계의 생산대수 추이(인쇄기계는 2005년에 디지털인쇄기 포함)



잉크 출하량 전년비 소폭 증가 <표9>

경제산업성의 2006년 화학공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일반 잉크(인쇄잉크 합계에서 신문잉크 제외)의 판매량은 전년비 0.7% 증가해 43만 6945만대였다. 판매금액은 전년비 1.6% 증가한 3007억 5700만엔, 2001년 이후 다시 3000억엔대로 진입했다. 인쇄잉크의 구성비를 보면, 평판잉크가 36.5%, 그라비아용 잉크가 31.8%로 둘의 합친 점유율은 2/3에 달했다. 신문용 잉크는 12.8%, 기타 잉크 10.9%(수지요판 5.0%, 금속잉크 3.0% 등)였다. 그라비아 잉크는 점유율의 하락에도 판매수량은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인쇄공업연합회의 2007년 인쇄산업경영동향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416개 회사의 잉크구입비 점유율은 8.7%(전년비 0.2% 증가)였다.

지·판지 수요 제자리 걸음 <표10>

일본제지연합회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2006년 지·판지의 일본국내 수요(국내 출하, 수입, 유통재고 증감분 등)는 전년비 0.5% 증가한 3206만 톤이었다.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인 DVD레코더 등 디지털가전제품을 시작으로 자동차, 여행객용 카탈로그, 팜플렛 등과 전단지도 증가했다. 종이의 수요분야별로는 인쇄·정보용지(신문용지+인쇄정보용지)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49.3%의 점유율을 보였다. 또 신문용지는 독일월드컵과 토리노올림픽의 영향으로 376만 4천톤으로 전년을 웃도는 실적을 보였다.

도공지는 2001~2006년 기간 동안 연평균 1.8% 증가

를 기록했지만, 비도공지의 수요는 출판수요의 부진 등으로 감소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포장·가공용 가운데 골판지 상자 원지는 가공식품용과 전기전자제품용의 수요증가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또 종이 용기용 판지 및 포장용지는 단위 포장화되어,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 수요 정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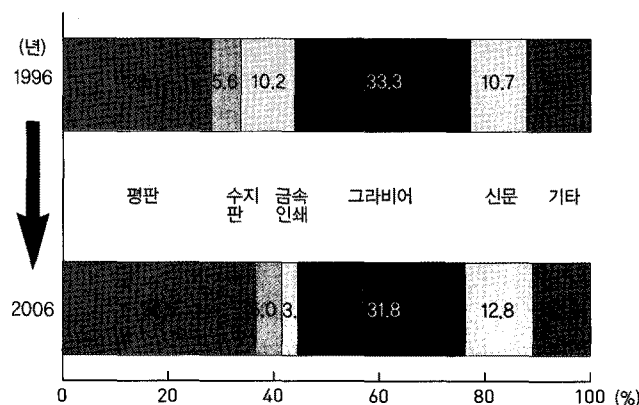
석탄, 중유, 목재 칩 등 원연료 비용의 상승과 함께 인쇄용지와 골판지 상자원지 등 이런저런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제지원료가 되는 고지가격이 수출, 국내 모두 상승하였으며 제지설비의 증강이 진전되고 중국에서 고지 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일본 국내도 지속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수급의 여유가 없어지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 1인당 247.4kg 소비

종이, 바블 통계에 의하면 2006년의 국별지·판지 소비량은 미국이 9052만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이 6600만톤, 일본 3153만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순이었다. 한국은 862만톤으로 8위를 차지했다.

1인당 지·판지소비량은 미국이 300.6kg으로 1위였다. 이어 독일 253.1kg, 일본 247.4kg, 영국 203.1kg, 이탈리아 201.1kg의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 최근 폐기물 감량화에 따라 자원으로서 유효이용을 추구하고 있는데 2006년 국별 고지이용률을 보면 한국이 88.1%로 1위였다. 이어 독일 67.3%, 중국 65.0%, 일본 61.2%, 프랑스 60.0%, 이탈리아 55.7%등의 순이었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표9> 인쇄잉크 판매수량의 구성비 추이



<표10> 인쇄·정보용지 수요추이

